

도내 종합건설업체 시공 능가 최고?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능력평가 결과 공시, 계성건설 새로운 1위 올라

대한건설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18년도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7일 공시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2018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계성건설(주)이 1,402억원을 기록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 (주)제일건설이 1,362억 원으로 2위(작년2위), 전년도 1위였던 (주)신일은 3위, 전년도 17위였던 (유)부강건설이 10위로 새롭게 'TOP

10위권'으로 진입했다.

또, 지난해 50위권 밖에 있었던 (주)제일종합건설(58위→25위), 관악개발(주)(91위→62위), (유)신화토건(54위→46위), (주)발해(59위→47위), (유)동부종합건설(71위→43위), 에스제이씨비트(유)(51위→44위), (유)신호건설산업(68위→45위), (유)태림종합건설(52위→49위)이 새롭게 50위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1등급업체는 없는 가운데, 상위 50위권의 시

공액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계속되는 SOC예산축소에 따른 공공공사 물량부족 대응하여 타지역 공사수주, 주택 및 민간 건설 공사의 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등급 업체의 수가 55개사나 되는 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에는 1등급 업체는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를 확인해보면 등급별 총업체수가 전년에

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도내 건설업체들이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정치·금융권·업계 등이 모두 힘을 합쳐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시기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제한제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본부장 김장근은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기념, 신규 가입 고객 대상 이벤트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고객 이벤트

농협은행 전북본부, 출시기념 1111명 추첨 경품 증정

농협은행 전북본부 본부장 김장근은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기념, 신규 가입 고객 대상 이벤트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은행에서 판매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자금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상품에 우대금리(최대 3.3%)와 별도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된 상품으로 만19~29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진행. 가입 고객 중 총 1,111명을 추첨하여 다이슨청소기, 토스트기 등 경품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반이 되는 청약상품에 가입하여 청약통장의 혜택은 물론이고 경품 수령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첨 고객 확인은 9월 첫째 주 농협은행 홈페이지,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고객은 은행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 행복센터(1661-3000, 1522-3000)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우정청 전주우편집중국 우수직원 'HUB 두드림' 시상

전북지방우정청장 김성철은 HUB 두드림 최고우수직원에 전주우편집중국 장동욱 주무관을 선정하고 지난 27일 '찾아가는 시상식' 통해 HUB 두드림 표창패와 격려품을 수여했다.

HUB 두드림은 전주우편집중국 직원을 대상, 업무에 대한 책임감 자긍심을 갖고 타의 모범이 되는 최고우수직원을 선발 우정청장이 직접 찾아가(격려, 포상)하는 제도다.

이에 첫 번째로 HUB 두드림으로 선정된 전주우편집중국 장동욱 주무관은 소포실장으로 근무, 평소 집중국 비용절감 및 업무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집배원 팀별 구분 효율 향상으로 집배원 노동강도를 낮추고 배달서비스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밝혔다.

김성철 청장은 "우체국 물류 네트워크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집중국에서 첫 번째 HUB두드림 시상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일선 현장에서 최고의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류 혁신에 매진하는 모습은 자랑스러운 HUB두드림이다"라며 직원들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반기별로 진행되는 HUB두드림 시상은 올 하반기 평가를 거쳐 내년 초에 두 번째 시상식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도내 가계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한은 전보, 대출금리 상승폭 시나리오 가정... '리스크 크지 않을 것' 예상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향후 전북지역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출금리 상승폭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폭을 추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정 결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은 제한적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며 단기적 시계에서는 가계대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했다.

다만 저소득자 취약자 및 지역업자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시 이자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대출금리 상승시, 대출 한도 및 대출 연장제취급 조건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지역 가계대출(2018년 3월말 현재 30.9조원)은 비은행 대출 위주로 전국평균보다 빠르게 증가(2013~2017년 중 연평균 증가율: 전북 10.1%, 전국 8.2%)했다.

한편, 비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저신용자(신용등급7~10등급) 및 취약자 주 대출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제17회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7일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양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 제17회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전북은행 임직원 20여명이 점심으로 제공한 주먹밥 국수 과일 등을 직접 준비하여 배식봉사활동을 했고 식사 후 기념품을 전달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북은행 전병찬 부행장은 "중복을 맞이해 전북은행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점심식사를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7일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양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 제17회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을 벌였다.

고, 앞으로도 전북은행의 따뜻한(관심,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매해 임직원의 급여 1%를 기부, 장애인 및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 한가득 주먹밥', 'JB 멘토링 문화 체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지나해 1093억원 사회공헌비 지출... 나눔 문화 확산 기여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093억원의 사회공헌비를 지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23일 공시한 '2017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연평균 1000억원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출, 2011년부터 7년째 은행권 사회공헌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도 이에 발맞춰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사회공헌활동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일손 돕기 사랑의 온기 나누기(현열운동)' 사랑의 빵 나누기 깨끗한 한옥마을 가꾸기 임실 호국면 묘역 가꾸기 등

매월 정기적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는 도내 전 영업점에서는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께 휴식공간과 생수를 제공하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오는 8월에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과 연계 하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장근 농협은행 전북본부 본부장은 "NH농협은행은 순수 국내지분 은행으로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1588 - 4477

www.jbbank.co.kr